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가 아동의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Expectations,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School Happiness*

윤남정(Namjung Yoon)¹⁾

신나나(Nana Shin)²⁾

ABSTRACT

A total of 378 4th and 5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194 boys and 184 girls) participated in a study investigating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rough self-esteem and/or achievement motivation) of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expectations on school happiness. First, parental expectations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levels of school happiness. Second, parental expectations did not have an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school happiness through self-esteem. Children who perceived higher levels of parental expectations showed higher levels of self-esteem, but the path from children's self-esteem to school happiness was not significant. Third, parental expectations had an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levels of school happiness through achievement motivation. Children who perceived higher levels of parental expectations showed higher levels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children with higher levels of achievement motivation reported higher levels of school happiness. Finally, parental expectations indirectly influenced children's school happiness through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oth

* 본 논문은 2013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

²⁾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Nana Sh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nanashin@ewha.ac.kr

environmental and individual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together to more comprehensively explain children's levels of school happiness.

Keywords : 부모의 기대(parental expectations), 자아존중감(self-esteem),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 학교 행복감(school happiness).

I. 서론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도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일 것이다. 비록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형태와 가치관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 삶의 최종 목표는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며, 그러한 행복을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스스로의 발달과업을 달성해간다. 행복은 오랫동안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자리잡아왔으며, 행복에 대한 연구는 성인 중심 연구에서 청소년과 아동까지 점차 그 범위가 넓혀져 가고 있다(Cho, Shin, Choi, & Choi, 2009; Jeon, 2011; Kang, 2012; Kim & Kim, 2008). 행복은 '사회와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나 활동에 대한 인지적·정의적 평가로 낮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와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 그리고 높은 수준의 만족을 경험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Kang, 2012), 어린 시절 경험한 행복감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 행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Jose, Ryan, & Pryor, 2012).

아동기 행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2013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에 의하면 한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3개 국가 중 5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Nam, 2013). 또한 세이브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제아동지표학회의 '국제 어린이 행복종합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구에 참여한 8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하였으며 국제행복지수의 8개 영역 중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최하위로 나타났다(Yoo, 2013).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만족감이 최하위로 나타났다는 점은 학령기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행복은 학자에 따라 행복감(happiness), 안녕감(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로 연구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Diener(2000)에 의해 정의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는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은 아동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행복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안녕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아동의 행복감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맥락적 상황을 고려한 '학교 행복감'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아동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장소라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아동의 행복에 관한 중요성이 성인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Noddings, 2003). 그러나 학교는 지식을 배우고 세상을 이

해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해야하는 장소로 (Kim & Kim, 2008),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행복감의 감소는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Natvig, Albrektsen, & Qvarnström,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의 측정 범위를 학교 현장으로 제한하여 학교라는 맥락적 상황을 고려한 학교 행복감 연구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국내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부모 변인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Shin, 2007)와 어머니(Shin, 2007; Y. I. Song, 2011)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아동이 느끼는 행복감이 높았던 반면, 어머니가 지적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낮았다(Lee, Doh, Choi, & Koo, 2010). 또한 최근에는 부모의 양육목표나 가치관과 같이 인지적 내용을 포함하는 부모의 양육신념이 중요한 변인으로 강조되고 있는데(Ahn & Park, 2002), 양육신념 중에서도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적 특성과 관점에 대한 신념(Park & Jung, 1996)을 의미하는 부모의 기대는 아동의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Chang, Banks, & Watkins, 2004; Huebner & McCullough, 2000).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는 않는데, 부모의 기대가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Byrnes & Miller, 2007; Cho, 2012)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Ahn & Kim, 2012)도 존재한다. 선행 연구들에서의 불일치는 부모의 기대에 대한 조

작적 정의와 측정방식에서의 차이일 수 있는데, 부모의 기대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Byrnes & Miller, 2007; Cho, 2012)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부모의 기대를 측정한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Ahn & Kim, 2012)에서는 아동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부모의 기대, 즉 과잉기대를 측정하였다는 것이 결과에서의 차이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의 부모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부모의 기대, 즉 아동의 능력에 적절한 수준의 기대를 측정하여 아동의 학교 행복감과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가 지각한 양육행동에 비해 청소년의 발달결과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Koo, Doh, & Choi, 2009)에 근거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를 측정하였다.

부모 변인과 아동의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에 더해, 부모 변인이 아동의 개인 변인을 통해 아동의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Furnham & Cheng, 2000; Y. I. Song, 2011). 자아존중감은 대표적인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으로, 부모 변인(K. Jang, 2011; Jang, 2006; Lee & Choi, 2003; Milevsky, Schlechter, Netter, & Keehn, 2007; Seo, 2013)과 행복감 관련 변인(Diener, Diener, & Diener, 1995; Jeon, 2011; Schimmack & Diener, 2003; Y. I. Song, 2011)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권위주의적 양육을 할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진 반면,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양육을 할 때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uri,

Louiselle, Misukani, & Mueller, 1988; Furnham & Cheng, 2000; Herz & Gullone, 1999; Jang, 2011; Lee & Choi, 2003; Milevsky et al., 2007; Park & Jung, 1996; Seo, 2013). 자아존중감은 또한 아동의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Diener et al., 1995; Schimmack & Diener, 2003; Veenhoven, 1984),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10; Jeon, 2011; Lucas, Diener, & Suh, 1996; Y. I. Song, 2011). 특히 Jeon(2011)은 학령 후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학교라는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학교 행복감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살펴보았는데,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인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대인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자아존중감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부모 변인, 자아존중감, 아동의 행복 세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Furnham 과 Cheng(2000)은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과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 I. Song, 2011). 즉,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양육했을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이는 높은 수준의 행복감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기대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학교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경로를 가정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성취동기 또한 부모의 기대와 아동의 학교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 내적 변인이

다.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성취동기 또한 부모 변인(Hong & Doh, 2002; Koo et al., 2009; Lee, 2006; Lee & Doh, 2005; Shaffer, 1998) 뿐 아니라, 아동의 행복감 관련 변인(Burton, Lydon, D'Alessandro, & Koestner, 2006; Seong & Hong, 2012; Soh, 2007; Y. M. Song, 2011; Updegraff, Gable, & Taylor, 2004)과 모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부모 변인과 아동의 성취동기 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Hong & Doh, 2002; Koo et al., 2009; Lee, 2006)과 양육신념(Lee & Doh, 2005)은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성취 기준 및 기대를 보일 때 자녀는 강한 성취동기를 지니게 되며(Lee & Doh, 2005), 성취를 강조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다(Lee, 2006). 또한 부모의 온정적인 태도는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게 하므로 아동이 주어진 과제를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haffer, 1998). 성취동기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성취동기가 높은 아동이 성취 욕구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Seong & Hong, 2012). 또한 성취동기와 유사한 개념인 내재적 동기(Burton et al., 2006), 학업동기(Soh, 2007), 적극적 학습참여와 학습흥미(Updegraff et al., 2004)가 높을 경우에 주관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였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기대, 아동의 성취동기와 학교행복감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드물지만, 성취동기와 유사한 변인인 학업동기를 사용한 연구(Song & Choi, 2012)에서는 학업동기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보고하

고 있다. 또한 아버지가 개방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성취동기는 높아지며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친구, 교사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Doh, 2008)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기대가 성취동기를 통해 아동의 학교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경로를 가정하였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기대가 아동의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 각각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은 또한 부모의 기대가 아동의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두 변인,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 간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Cho, 1994; Harter, 1983; Hong & Doh, 2002; Jung & Moon, 2011; Lee & Doh, 2005). 아동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를 높이는 반면,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Cho, 1994),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부모 변인과 개인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Jung과 Moon(201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취동기도 높았으며(Hong & Doh, 2002),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므로 높은 성취동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Doh, 2005). 이를 통해 아동의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아존중감은 학교 행복감 뿐 아니라 성취동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동 개인 변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로에 더하여 부모의 기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 즉 부모의 기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이는 성취동기를 높임으로써 나아가 학교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추가하였다. 실제 이 네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가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양육을 할 경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이를 통해 성취동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Hong & Doh, 2002)와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다는 연구결과(Seong & Hong, 2012)를 통해 이러한 경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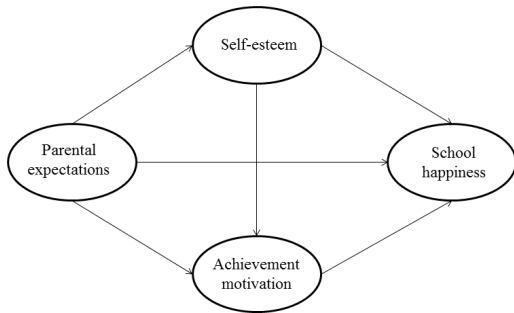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이론적 근거로 부모의 기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기대가 아동의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 성취동기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Figure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는 학교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는 학교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교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Figure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 2-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는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2-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는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 소재 3곳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학년 아동 378명(남아: 194명, 여아: 184명)이다.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으로 선정한 이유는 경쟁적인 삶의 범위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넓혀진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아동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아동들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며(Cho et al., 2009),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는 학령 후기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내면화된다는 연구결과(Jung & Moon, 2011)에 근거하였다. 6학년 아동을 연구대상에서 제외 한 것은 6학년은 학

령 후기에서 청소년 초기로의 전환기에 있는 연령으로, 학령 후기인 4, 5학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남학생이 194명(51.3%), 여학생이 184명(48.7%)이었으며, 학년 구성은 4학년이 147명(38.9%), 5학년이 231명(61.1%)으로 5학년이 4학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출생순위의 경우 외동이 31명(8.2%), 첫째 115명(30.5%), 둘째 194명(51.3%), 셋째 이상 38명(10.1%)으로 둘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344명(91.0%), 대가족이 34명(9.0%)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40~44세가 200명(52.9%)으로 가장 많았고, 45~49세가 121명(32.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40~44세가 202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40세 미만이 112명(30.5%)으로 그 다음 비율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이 201명(53.2%)과 209명(55.3%)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99명(26.2%)과 97명(25.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243명(64.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업주, 고위 공무원, 간부로 33명(8.7%)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가정주부인 경우가 180명(4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으로 87명(23.0%)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및 학교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척도는 아동에 의해 보고되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는 Baek(1985)이 제작한 부모의 기대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5점 척도였으나 보다 분명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Lee와 Doh(2005)가 4점 척도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의 기대를 측정하는 단일 요인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내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 ‘내가 착실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하신다.’ 등이 있다.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대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여 각각 측정하였으며,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부의 기대 .94, 모의 기대 .95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Park과 Doh(199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단일 요인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등이 있다. 부정적 의미의 문항은 역채점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0이었다.

3) 성취동기

성취동기는 Hermans(1970)의 성취동기검사

(Prestate Motivatie Test)를 Hong과 Doh(200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10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Hong과 Doh(2002)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요인이 .61 이하의 낮은 신뢰도가 보고되어 단일 요인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성취동기검사 척도는 총 29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중요한 일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자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어떤 일을 지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부정적 의미의 문항은 역채점하여 성취동기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4) 학교 행복감

학교 행복감은 Kim과 Kim(2008)이 개발한 학교 행복감 척도를 Y. M. Song(2011)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제외한 학교 내에서의 행복감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4가지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원척도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보다 분명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교 행복감 척도는 친구관계(4문항), 교사관계(4문항), 학습 즐거움(4문항), 심리적 안정(4문항)의 4가지 요인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친구관계의 경우 ‘학교에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기쁘다.’,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학교생활이 즐겁다.’ 등이 있으며, 교사관계의 경우 ‘담임선생님과의 대화가 즐겁다.’, ‘담임선생님이 나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마

움을 느낀다.’ 등이 있다. 학습 즐거움의 경우 ‘학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 기분 좋다.’, ‘좋아하는 교과목이 있어서 학교생활이 재미있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리적 안정은 ‘학교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종종 우울할 때가 있다.’, ‘학교에서 맡은 일이나 숙제 때문에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가 많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부정적 의미의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각 하위 요인별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친구관계 .65, 교사관계 .91, 학습 즐거움 .79, 심리적 안정 .66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2년 12월 중에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3곳의 4,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및 응답 시 유의사항을 전달한 후, 각 담임교사의 지시 하에 아동이 직접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배부한 489부를 모두 회수하였으며,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28부)와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61부)를 제외한 후, 총 4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연구변인의 표준화 값(Z)이 $\pm 3SD$ 를 벗어난 이상치가 포함된 22부를 제외하고(Tabachnick & Fidell, 2001), 총 37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을 시작하기 전,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

율을 산출하였고, 조사도구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가 학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통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및 학교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1).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어(부: $r = .57, p < .001$, 모: $r = .58, p < .001$), 부모의 기대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와 아동의 성취동기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는 아동의 성취동기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어(부: $r = .67, p < .001$, 모: $r = .65, p < .001$), 부모의 기대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성취동기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와 아동의 학교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친구관계(부: $r = .32, p < .001$, 모:

<Table 1> Correlations among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expectations, self-esteem, achievement motivation, and school happiness (N = 378)

Variables	1	2	3	4	5	6	7	8
1. Paternal expectations	-							
2. Maternal expectations	.85***	-						
3. Self-esteem	.57***	.58***	-					
4. Achievement motivation	.67***	.65***	.63***	-				
5. Relations with peers	.32***	.32***	.38***	.47***	-			
6. Relations with teachers	.21***	.21***	.25***	.34***	.27***	-		
7. Academic enjoyment	.42***	.43***	.42***	.61***	.41***	.61***	-	
8. Psychological well-being	.21***	.20***	.42***	.27***	.20***	.28***	.37***	-
M	3.23	3.28	2.99	3.04	3.56	2.97	3.29	2.90
SD	0.47	0.49	0.45	0.37	0.47	0.84	0.60	0.68

*** $p < .001$.

$r = .32, p < .001$), 교사관계(부: $r = .21, p < .001$, 모: $r = .21, p < .001$), 학습 즐거움(부: $r = .42, p < .001$, 모: $r = .43, p < .001$), 심리적 안정(부: $r = .21, p < .001$, 모: $r = .20, p < .001$)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부모의 기대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학교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어($r = .63, p < .001$),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친구관계($r = .38, p < .001$), 교사관계($r = .25, p < .001$), 학습 즐거움($r = .42, p < .001$), 심리적 안정($r = .42, p < .001$)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이 학교 행복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성취동기와 학교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친구관계($r = .47, p < .001$), 교

사관계($r = .34, p < .001$), 학습 즐거움($r = .61, p < .001$), 심리적 안정($r = .27, p < .001$)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성취동기가 높은 아동이 학교 행복감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모형 분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및 학교 행복감을 측정하는 하위요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변수들이 특정 잠재변수들을 구성하는 관계에 초점을 둔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가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측정변인이 하나인 단일지표모형이므로 모델식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추정할 계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Bae, 2011). 이를 위해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표준편차($SD_{자아존중감} = 0.45$,

SD성취동기 = 0.37), 분산(분산자아존중감 = .20, 분산성취동기 = .14), 신뢰도 계수($a_{\text{자아존중감}} = .80$, $a_{\text{성취동기}} = .87$)를 산출한 후, 잠재변인에서 단일지표로의 요인부하량을 (신뢰도) \times (SD), 측정오차를 (1-신뢰도) \times (분산)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 = 87.060(df = 16)$, $\chi^2/df = 5.441$, GFI = .947, NFI = .943, TLI = .916, CFI = .952, RMSEA = .109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 값을 살펴보았는데, 자아존중감(e3)과 심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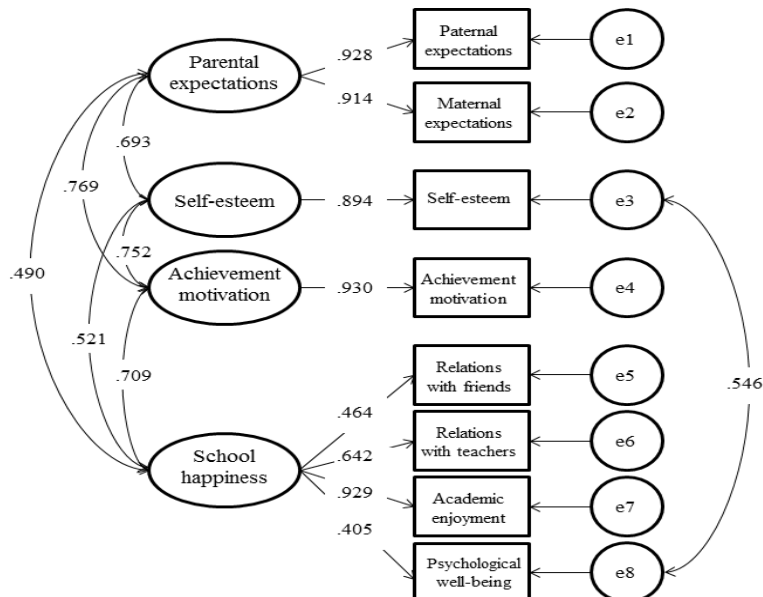
안정(e8) 간의 공분산 경로가 9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지수가 보수적인 기준인 9 이상이고(Fassinger, 1987),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정 모두 이론적으로 개인의 내적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러한 두 변인간의 공분산을 설정한 후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 = 45.384(df = 15)$, $\chi^2/df = 3.026$, GFI = .971, NFI = .970, TLI = .962, CFI = .980, RMSEA = .073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Table 2). 또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변수들의

<Table 2> Fit indices of a measurement model

Model	χ^2	df	χ^2/df	GFI	NFI	TLI	CFI	RMSEA (LO90~HI90)
Measurement model	45.384***	15	3.026	.971	.970	.962	.980	.073 (.049~.098)

*** $p < .001$.

Note.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are displayed. Factor loadings from latent variables to measured variables are all significant at $p < .001$.



<Figure 2> Parameter estimates of the measurement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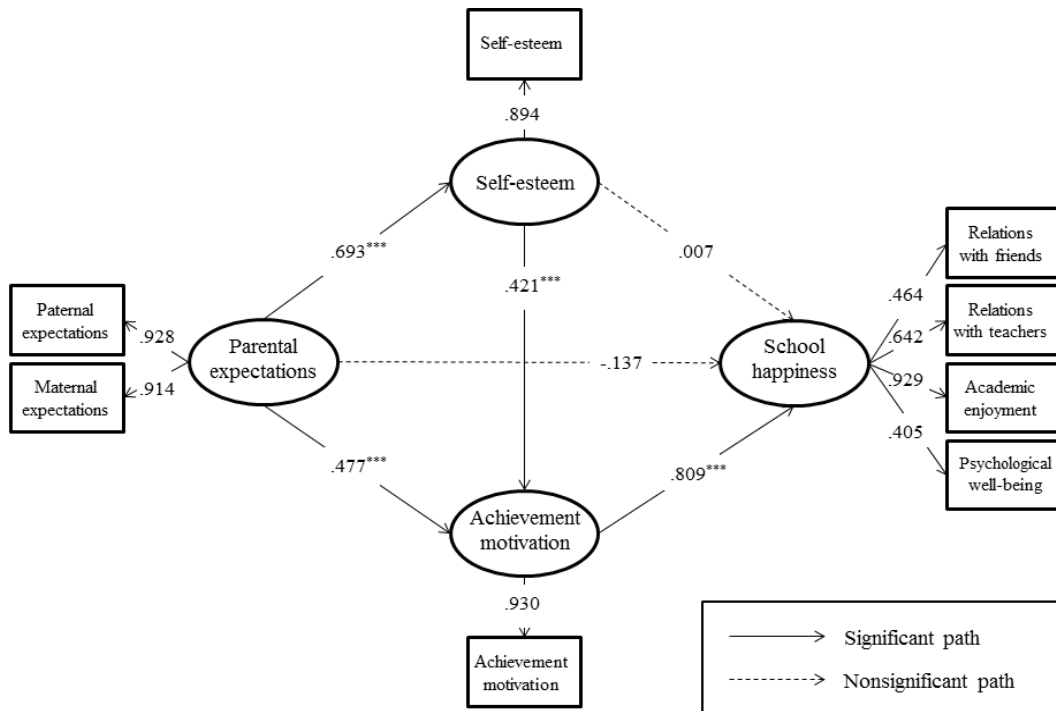
C.R.(Critical Ratio)값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모든 요인부하량(β)의 절대값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 2009)(Figure 2).

3. 구조모형 분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가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chi^2 = 45.384(df = 15)$, $\chi^2/df = 3.026$, GFI = .971, NFI = .970, TLI = .962, CFI =

.980, RMSEA = .073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가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경로는 Figure 3에 제시되어 있다. 각 변인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가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교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부모의 기대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beta = .693$, $p < .001$), 자아존중감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의 기



Note.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are displayed. Errors and disturbances are omitted. Factor loadings from latent variables to measured variables are all significant at $p < .001$.

*** $p < .001$.

<Figure 3> Direct and indirect paths from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expectations to school happiness

대를 높게 지각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의 학교 행복감이 높지는 않았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가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와 관련하여, 부모의 기대는 성취동기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477, p < .001$)을, 성취동기는 학교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809, p < .001$). 즉, 부모의 기대를 높게 지각한 아동은 성취동기가 높았으며, 이는 높은 학교 행복감으로 연결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가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부모의 기대는 자아존중감에($\beta = .693, p < .001$),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에($\beta = .421, p < .001$) 그리고 성취동기는 학교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809, p < .001$). 즉, 부모의 기대를 높게 지각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이는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아가 학교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가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다(Table 3).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그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가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627, p < .01$). 각 변인이 아동의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의 학교 행복감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취동기였으며($\beta = .809, p < .01$), 부모의 기대($\beta = .490, p < .05$), 자아존중감($\beta = .348, p < .05$)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인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살펴본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와 자아존중감, 성취동기는 학교 행복감을 51.1% 설명하였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와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를 68.3% 설명하였으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는 자아존중감을 48.1% 설명하였다.

〈Table 3〉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s from latent to latent variables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SMC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rental expectations → School happiness	-.137	.627**	.490*	.511
Self-esteem → School happiness	.007	.341*	.348*	
Achievement motivation → School happiness	.809**	-	.809**	
Parental expectations → Achievement motivation	.477**	.292*	.769**	.683
Self-esteem → Achievement motivation	.421*	-	.421*	
Parental expectations → Self-esteem	.693**	-	.693**	.481

Note. Significance levels were derived from bootstrapping.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 $p < .05$.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가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기대는 아동의 학교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기대를 아버지의 기대와 어머니의 기대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갖는 기대가 클수록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Byrnes & Miller, 2007)와 아버지(Shin, 2007)와 어머니(Shin, 2007; Y. I. Song, 2011)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아동이 느끼는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이 부모의 양육을 애정적이고 민주적이며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Cho, 2012)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부모의 기대와 아동의 학교 행복감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 즉 부모의 기대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학교 행복감이 높았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 부모의 기대 뿐 아니라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포함하여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했기 때문일 수 있다. 선행연구(Song & Choi, 2012)에서도 아동의 학업동기가 매개변인으로 포함되었을 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학업동기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

만이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지만, 자아존중감에서 학교 행복감으로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기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행복감 간의 경로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자아존중감이 민주적 양육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며(Furnham & Cheng, 2000), 부모의 애정적이고 성취압력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Ka, Jo, & Lim, 2008)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부모의 기대를 높게 지각한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가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권위주의적 양육을 할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진 반면,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양육을 할 때에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Buri et al., 1988; Jang, 2006; Lee & Choi, 2003; Milevsky et al., 2007; Park & Jung, 1996; Seo, 2013)과 일치하며, 어머니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동(Jung & Moon, 2011)과 청소년(Hong & Doh, 2002)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통하여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Park & Jung, 1996),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기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부모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고 기대한다는 것을 아동이 지각할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교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들(Choi, 2010; Furnham & Cheng, 2000; Ko, 2012; Lucas et al., 1996; Y. I. Song, 2011)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들이 아동의 일반적인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적 맥락 안에서의 행복감을 측정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과 달리 학교 행복감에는 아동 개인뿐 아니라 친구관계, 교사관계와 같은 대인관계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 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하였으나, 이러한 가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 행복감의 경우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결과만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가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기대를 높게 지각한 아동일수록 성취동기가 높았으며, 성취동기가 높은 아동일수록 학교 행복감도 높았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기대를 높게 지각한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았는데, 이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가 성취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성취 기준 및 기대를 보일 때 높은

성취동기를 지니게 된다는 연구결과(Lee & Doh, 2005)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Davis-Kean, 2005; Gill & Reynolds, 1999; Lim, 2011; Neuenschwander, Vida, Garrett, & Eccles, 2007)과 아동이 부모의 양육을 민주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동기적인 신념, 자세에 영향을 미쳐 성취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Gonzalez & Wolters, 2006)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기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학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Jacobs, 1991; Phillips, 1987)이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취동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부모가 자신의 성취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이를 내면화하여 강한 성취동기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성취동기는 학교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내재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습자들은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결과(Burton et al., 2006)를 지지한다. 이는 학습동기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oh, 2007)와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Park & Kim, 2008)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높은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학교에서 높은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아동이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 학업성취를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의 기대가 아동의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기대를 높게 지각한 아동일수록 성취동기가 높았으며, 이는 높은 학교 행복감으로 연결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학업동기가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난 Song과 Choi(2012)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개방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성취동기는 높아지며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친구, 교사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Doh, 2008)와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할 때 높은 성취동기를 가지게 되고, 성취동기가 높은 아동은 어려운 일을 가능한 한 조속히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높은 내적 성향을 지니게 되므로 학교생활에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 행복감을 살펴보는 데 있어 부모의 양육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동의 성취동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는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의 기대는 자아존중감에,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에 그리고 성취동기는 학교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개변인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또 다른 매개변인인 성취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은 성공에 대한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Cho, 1994; Harter, 1983; Hong & Doh, 2002; Jung & Moon, 2011; Lee & Doh, 2005)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면 성취동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Cho, 1994)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아동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때, 자신의 유능감을 내면화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내적 의욕이 강해짐에 따라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가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Furnham & Cheng, 2000)와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Seong & Hong, 2012)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유능감을 신뢰하고 강한 내적 의욕을 가지게 되어 높은 성취동기를 가지게 됨으로써, 나아가 학교생활에서도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학교 행복감을 연구하는 데 있어 부모 변인과 아동 개인 변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종합해보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는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 변인 간의 경로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는 아동의 학교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를 통한 간접적인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학교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성취동기였음을 미루어볼 때, 학교라는 특수한 맥락적 상황에서 측정된 학교 행복감이 아동의 성취동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삶의 질을 살펴보는 학교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은 물론 아동의 학교 행복감을 살펴보는 데 있어 초등학생을 포함 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기대를 측정함에 있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만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실제 부모의 기대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 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 이외에 부모의 직접 보고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학교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친구관계와 심리적 안정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65와 .66으로 비교적 낮게 산출되었다. 이는 질문지 조사 시 연구자가 필요에 따라 연구대상자에게 각 문항의 요지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연구대상인 학령기 아동들이 정확한 응답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야기된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질문지법 이외에도 면접법, 관찰법과 같은 다각화된 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동일한 시점에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각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취동기의 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성취동기가 행복과 결부됨을 고려해볼 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는 학령 후기 아동에게 있어 성취동기의 증진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둘째, 행복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이 성인과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가 드문

실정에서, 본 연구는 학령 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느끼는 행복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뿐 아니라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포함함으로써 아동의 내적·외적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References

- Ahn, D. H., & Kim, Y. R.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ctancy-value, academic achieve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3), 293-319.
- Ahn, J. Y., & Park, S. Y. (2002).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 53-68.
- Bae, B. R. (2011). *AMOS 1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Cheongram.
- Baek, Y. B. (1985). The relations between self-fulfilling prophecy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Buri, J., Louiselle, P., Misukanis, T., & Mueller, R. (1988). Effects of parental authoritarianism and authoritativeness on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4, 271-282.
- Burton, K. D., Lydon, J. E., D'Alessandro, D. U., & Koestner, R. (2006). The differential effects of intrinsic and identified motivation on

- well-being and performance: Prospective, experimental, and implicit approaches to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4), 750-762.
- Byrnes, J. P., & Miller, D. C. (2007). The relative importance of predictors of math and science achievement: An opportunity-propensity analysi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4), 599-629.
- Chang, E. C., Banks, K. H., & Watkins, A. F. (2004). How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relate to positive and nega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Testing a stress-mediation model in Black and White female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93-102.
- Cho, E. J. (2012). How parenting influences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 terms of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lay Therapy*, 15(1), 35-50.
- Cho, S. Y., Shin, H. Y., Choi, M. S., & Choi, H. Y. (2009). Survey 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happines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0(2), 129-144.
- Cho, Y. R.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M. K. (2010). The relations of children's stress,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10), 65-75.
- Davis-Kean, P. E. (2005). The influence of parent education and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The indirect role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the home environ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294-304.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Diener, E., Diener, M., & Diener, C. (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851-864.
- Doh, K. H. (2008). Relation among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father-child communication style,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4), 139-155.
- Furnham, A., & Cheng, H. (2000). Perceived parental behaviour, self-esteem and happines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5, 463-470.
- Gill, S., & Reynolds, A. J. (1999).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school achievement of urban African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7(4), 403-424.
- Gonzalez, A., & Wolters, C. A. (2006).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ing practices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mathematic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21(2), 203-217.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 (Ed.), P. 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 Hermans, H. J. (1970). A questionnaire measure

- of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4(4), 353-363.
- Herz, L., & Gullone, E.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parenting style: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Australian and Vietnamese Australian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 742-761.
- Hong, S. H., & Doh, H. S. (2002).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self-esteem as related to their achievement motivation.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2), 145-157.
- Huebner, E. S., & McCullough, G. (2000). Correlates of school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3(5), 331-335.
- Jacobs, J. E. (1991). Influence of gender stereotypes on parent and child mathematics attitud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4), 518-527.
- Jang, K. M. (2011). The influences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their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2), 243-261.
- Jang, M. Y. (2006).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ren, self-esteem and problem solv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Jeon, D. S. (2011). The effects of self-esteem, self-control and interpersonal relation on school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Jose, P. E., Ryan, N., & Pryor, J. (2012). Does social connectedness promote a greater sense of well-being in adolescence over tim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2(2), 235-251.
- Jung, H. J., & Moon, H. J. (2011). Correlates of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Mother's conversation pattern, maternal emotional support, and children's self-esteem.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5), 107-119.
- Ka, Y. H., Jo, M. J., & Lim, S. W.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6(4), 31-42.
- Kang, Y. H. (2012). Implications of happiness studies to educatio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5(2), 1-21.
- Kim, J. B., & Kim, T. E. (200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school happiness scale.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2(1), 259-279.
- Ko, H. Y. (2012). Parenting attitudes and middle school students'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oo, H. K., Doh, H. S., & Choi, M. K. (2009). The effects of maternal achievement pressure and emotional support on adolescents' achievement motivation.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5), 195-206.
- Lee, K. N. (2006). Individual and parental factors that affect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5), 161-174.
- Lee, S., & Choi, J. M. (2003). Influences of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s and peer acceptance on children's self-esteem.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2), 31-42.
- Lee, S. H., Doh, H. S., Choi, M. K., & Koo, S. K. (2010). Exploring pathways from mothers' beliefs to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private after-school education and stress level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1(3), 255-272.
- Lee, U. K., & Doh, H. S. (2005). Correlates of adolescent achievement motivation: Socio-economic status, maternal expectations and emotional support, and adolescent self-esteem.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6(3), 43-59.
- Lim, S. A. (2011). Longitudinal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ents' and students' factor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5(4), 811-833.
- Lucas, R. E., Diener, E., & Suh,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16-628.
- Milevsky, A., Schlechter, M., Netter, S., & Keehn, D. (2007).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1), 39-47.
- Nam, J. M. (2013, May 4). Korean adolescents and children's happiness exponent, the last of OECD countries. *Chosun daily news*, Retrieved fr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4/2013050400665.html.
- Natvig, G. K., Albrektsen, G., Qvarnström, U. (2003). Associations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happiness among school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9, 166-175.
- Neuenschwander, M. P., Vida, M., Garrett, J. L., & Eccles, J. S. (2007). Parents' expectations and students' achievement in two western n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6), 594-602.
- Noddings, N. (2003). *Happiness and educa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S. Y., & Doh, H. S. (1998).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elf-esteem and loneliness in adolescent.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2(4), 229-244.
- Park, Y. A., & Jung, O. B. (1996).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self-esteem in children.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1), 321-340.
- Park, Y. S., & Kim, U. C. (2008). The quality of lif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2(4), 801-836.
- Phillips, D. A. (1987). Socialization of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among highly competent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308-132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immack, U., & Diener, E. (2003). Predictive validity of explicit and implicit self-esteem for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 in *Personality*, 37, 100-106.
- Seo, H. (2013). The effects of parenta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elf-esteem on school age boys' and girl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eong, J. H., & Hong, H. Y. (2012). The medit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subjective well-being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13(1), 325-340.
- Shaffer, D. R. (1998). *Developmental psychology* (5th ed.). Belmont, CA: Brooks/Cole.
- Shin, M. D.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s perception of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ongju, Korea.
- Soh, Y. H. (2007).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efficacy, self-determination, academic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n subjective well-being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1(4), 1007-1028.
- Song, H. W., & Choi, S. Y. (201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overty level,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learning motiv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6(3), 651-672.
- Song, J. J. (2009). *SPSS/AMOS statistics analyses*. Gyeonggi: 21Cbook.
- Song, Y. I. (2011). The influence of mother's rearing attitude on children's happiness: Children's self-esteem as a mediat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Y. M. (2011). The Effects of the special purpose highschool students' parent-child relationship, ego-resilience and study competence on school happines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5(3), 647-669.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4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Updegraff, J. A., Gable, S. L. T., & Taylor, S. E. (2004). What makes experience satisfying? The interaction of approach-avoidance motivations and emotions in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3), 496-504.
- Veenhoven, R. (1984). *Conditions of Happiness*. Norwell, MA: Kluwer Academic Publishers.
- Yoo, K. H. (2013, May 28). Korean children's happiness exponent, the 7th of 8 countries. *Donga daily news*, Retried from <http://news.donga.com/3/all/20130528/55455470/1>.

Received February 28, 2014
Revision received May 7, 2014
Accepted May 21, 2014